너희 묵은 땅을 갈라 - 마음의 할례

WELCOME
마음을 여는 대화

친교부장

누구에게나 집안 베란다 한구석이나 서랍장 깊은 곳에, 쓰지도 않으면서 버리기는 아까워 수년째 방치해 둔 '묵은 짐'들이 하나쯤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일상이나 내면에도 이처럼 '올해는 꼭 고쳐야지, 버려야지' 다짐하면서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고 마는 나만의 '해묵은 습관'이나 고집이 있나요? 내 삶에 오랫동안 자리 잡은 굳어진 습관이나 물건에 대한 에피소드를 편안하게 나누어 봅시다.

WORSHIP
마음을 드리는 찬양

찬양부장

〈 금주의 찬양 : 주의 나라가 임할 때 〉

찬송가 :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새찬송가 282장)
너 성결키 위해 (새찬송가 420장)

복음성가 악보는 뒷면에 있습니다.

WORD Ⅰ
말씀 나눔

예레미야 4장 1~4절 (구약 1055면) 목 자

"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렘 4:3)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렘 4:4)

WORD Ⅱ
은혜 나눔

전도부장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나누는 시간

1.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씨앗을 뿌리기 전, 먼저 '묵은 땅을 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오랜 시간 굳어져 버려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묵은 습관', 교만하게 굳어버린 '묵은 지식', 혹은 첫사랑의 감격이 식어버린 '낡은 감성'은 없는지 솔직하게 돌아봅시다. 내 마음 밭에서 가장 시급하게 기경(갈아엎어야)해야 할 묵은 땅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2. 예수님의 '네 가지 밭 비유'처럼, 생명의 말씀이 심기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길가나 돌밭처럼 굳어진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러운 옥토밭으로 회복되기 위해, 이번 주간 나의 일상과 영적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굳은 고집이나 영적인 게으름을 끊어낼 것인지 결단하며 나누어 봅시다.

WORK
기도와 돌봄으로 섬김

기도부장

목장 내에 서로 살피고 기억해야 할 것들을 나누며

① 우리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진실한 회개(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삼십 배, 육십 배 열매 맺는 옥토밭이 되게 하소서.
② 목장과 가정을 위한 기도: 서로 기도 제목들을 나눈 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소식나눔(주보참고) : 비전부장

'주기도문'으로 목장모임을 마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심형진

